

군산시 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관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전제사업장 비상대응계획 · 운송경로 포함 자체 계획

군산시가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으로 안전한 군산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다.

시는 지난 28일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군산 만들기를 위해 '군산시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을 전면 개정해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제시한 표준안을 토대로 민·관·산·학 거버넌스 체계로 구성된 화학물질안전관리 소위원회 자문을 받아 군산 실정에 맞는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했다.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비상대응인력강화, △사업장

의 화학사고 위험 예방, △지역주민 교육 및 홍보, 소용방안,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행동 요령, △화학사고 대응역량 강화, △화학사고 누출사고 대응 절차, △관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전제사업장의 비상대응계획, △유해화학물질 운송업체 현황 및 운송경로 등을 담았다.

특히 평택대학교와 업무협약을 통해 진행했던 '화학사고 후 주민 복귀 시점 및 피해복구 종료시점 결정 매뉴얼'을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에 담아 복구계획 등을 상세하게 수록했다.

이번 전면 개정된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은 본책과 별책으로 나눠 발행했으며, 본책에는 화학물질 누출 사고

대응 절차 등 화학사고 전반에 대한 사항이 기재돼 있다. 별책은 총 7편으로 군산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70곳과 보관 3곳 판매 5곳을 포함한 78개 사업장의 비상대응계획과 운송업체 현황 및 경로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책자는 시 홈페이지 환경정책과 부서 자료집과 군산 화학물질 관리 지도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대현 환경정책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은 담당인 허정 주무관의 열정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작성된 의미 있는 계획서"라고 말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는 제104주년 3·1절을 맞아 1일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 대공연장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익산시, 3·1절 기념식 개최

호남 유일 생존 애국지사 이석규씨 참석... 기념식 의미 더해

익산시는 제104주년 3·1절을 맞아 1일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 대공연장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에는 3.1만세운동 참여자 유족인 광복회원, 보존단체장, 지역 기관장 학생 시민 및 공무원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특히 이날 호남 유일의 생존 애국지사인 이석규(민96세)씨의 참석으로 기념식의 의미를 더했다.

3.1절을 떠올리게 하는 포토존을 설치해 학생과 시민들이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는 모습 등 역사적 의미를 갖게 하는 순간을 경험하게 해 기념식장의 분위기를 한껏 올렸다.

시립무용단의 식전공연 '그날'은

1919년 3월 1일 애끓는 조국애로 지켜낸 그날로 사랑하는 남을 잃지 않으려 가슴에 담고 온 힘 다해 지켜낸 상황을 무용으로 표현했다. 또한 시립합창단의 조국독립을 바라는 기념공연이 펼쳐져 3.1절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어 독립선언서 낭독 기념사 3·1절 노래 제창 이석규 용과 익산시의회 최중오 의장의 선창에 따른 만세삼창 순으로 기념식은 마무리 됐다.

정현을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3.1운동 당시 선조들이 국난 극복을 위해 일제타도 했듯이 후손들에게 물려 줄 이름답고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드는 데 다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방문의 해', 전사적 협력 500만 관광도시 도약

시 32개 부서 실무협의회 개최

익산시가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2023 익산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500만 관광도시로 도약한다.

시는 지난 28일 시청 상황실에서 32개 부서와 함께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전략적 업무 협업체계를 위한 보고회를 개최했다.

실무협의회는 32개 부서가 긴밀히 협의해 문화관광 홍보활동,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여건 및 기반 조성분야로 나눠 전문적 지원에 나선다.

시는 보고회를 통해 익산관광의 전략적인 홍보활동을 부서별 각 행사들과 더불어 익산방문의 해 이벤트를 진행하고 함께 홍보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매력적인 관광여건 조성을 위해 농촌환권과에서는 농촌관광객 체험, 숙박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문화관광산업과에서는 단체관광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익산여행에 맞춘 푸어를 위해 위생과에서는 대표음식점과 안식식당을 지정·운영하며 대표맛집 홍보활동을 펼친다. 숙박업소 점검·관리를 강화해 깨끗한 숙박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손님맞이를 위한 관광지의 환



익산시는 지난 28일 시청 상황실에서 32개 부서와 함께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전략적 업무 협업체계를 위한 보고회를 개최했다.

경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는 '백제고도, 서동축제, 천만송이 국화축제, 유네스코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라는 관광 기반 위에 아가페정원, 다이노키즈월드 포함한 왕궁보석미술관, 홀로그램을 결합한 교도소세트장 등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

500만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자연속 액티비티로 전국 최고 수준의 공공수목장, 숲과 자연이 공존하는 용안생태습지 등을 통해 관광객에게 익산민의 매력을 어필하고 있다.

시는 방문의 해 기간 동안 가족소풍, 소규모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와 이벤트를 준비하고 시티투어버스 운영 등 관광객들이 다인하고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대식 부시장은 "2023 익산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관광도시 익산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많은 부서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며, "머무는 익산, 다시찾는 익산, 즐길 수 있는 익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의회 "군산새만금신항·주변 관할권 분쟁 방관 말라"

김관영 도지사 면담과 함께 촉구 건의문 전북도에 전달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지난 24일 군산시에 연무방문한 김관영 도지사를 면담하여 군산새만금신항과 주변 관할권 분쟁에 적극 중재할 것을 촉구하고 이에 대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28일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김관영 도지사가 군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군산을 역차별하고 있다며, 2호 방조제를 빼앗긴 것에 시민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데 군산새만금신항과 동서도로에 대해 김지사가 또다시 일방적으로 관할권 주장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입을 모았다.

김영일 의장은 "도에서 중재를 아예 안 하고 있으니 관할권 분쟁이 생길 때마다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들여 사사건건 소송을 해야 할 판이다. 문제를 피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갈등만 더 키우고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이 늘어만 간다. 도에서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토로했다.

또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이 새만금 발전을 위하여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틀렸다. 도의 방관으로 김지에 이어 군산·부안·이 새만금 관할권 관련 범시민위원회 출범을 준비하는 등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대상 시·군 분열하고 있다. 관할권 분쟁이 앞서 정리되지 않으면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이 탄력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래 위에 세운 성처럼 위태로울 것이다"고 한탄했다.

서동완 의원은 "김지는 동서도로 관할권을 먼저 결정하고 내부 개발하자고 주장하는데, 여태 방조제 조성이나 새만금 개발할 때 관할권을 먼저 정한 적은 없었다"며 "1991년 새만금 방조제 착공 당시에 관할권을 결정했다면 1, 2, 3, 4방조제가 모두 군산 관할이었을 것이다. 방조제 관할권은 개발 후에 논의되었는데, 군산새만금신항과 동서도로는 개발 전에 결정해야 한다는 소리는 아전인수 주장이다. 도에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눈을 감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관영 도지사가 예전 국회의원 시절과 다르다. 전에 중앙분쟁 조정 위원회를 중앙분쟁 조정 위원회라며 군산의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에 대해 강력히 성토했던 과거의 입장과 달리 지금은 무엇이냐"며 "솔직한 전 도지사 때도 지역 차별을 당해서 새만금 관할권 분쟁이 더 심해졌는데, 군산 출신인 김관영 도지사가 더 역차별을 하고 있다"며 한탄했다.

한편, 서 의원의 "8년 전 김관영과 지금의 김관영이 바뀐 것이냐"라는 질문에 김관영 도지사가 "예, 그렇습니다"라고 무성하게 답변하자 시의

원 대다수가 분개해 군산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한탄했다.

김경구 의원은 "군산 김제 두 지역이 아무리 소리를 내어도 소용이 없다. 관할부처는 도지사의 의견을 더 중시하는 것이 사실이지 않냐? 그만큼 도의 역할을 중시하는 것이냐. 도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중대 의원은 "여태 터전을 일구놓은 내 땅에서 나가려는 꼴이다. 김제의 후안무치한 행동에 우리 군산시민은 피를 토하는 심정이다. 현재도 군산의 행정구역인 곳을 도에서 왜 군산 관할이라고 말할 못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의문을 표했다.

군산시의회는 이날 도지사 면담과 함께 군산새만금신항 및 주변 관할권 분쟁해결 촉구 건의문을 전북도에 전달했다.

그동안 군산시의회는 군산새만금신항 관련하여 정부와 전북도는 새만금신항 및 주변 관할권을 주장하는 김제 시 농단을 엄중히 해결하라' 언론 브리핑과 '새만금신항 및 주변 관할권 분쟁 해결 촉구', '군산새만금신항으로 명칭 사용 천명' 결의안을 민정일치로 채택했으며, 전북도의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설립회를 보이콧한 바 있다.

또한 지난달 30일 새만금신항 및 주변 관할권 분쟁 해결을 위한 도청에서 언론 브리핑을 가졌고 도지사와의 면담을 3차례 요청했으나 무산될 바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국립군산대학교는 지난 28일 교내 이커데미움에서 2023학년도 입학식을 개최했다.

국립군산대, 2023학년도 입학식

국립군산대학교는 지난 28일 교내 이커데미움에서 2023학년도 입학식을 개최했다.

올해 입학식에서는 학사, 석사, 박사 등 1,900명 가량의 우수재들이 입학 허가를 받았다.

이장호 총장의 입학축하에 이어 영 어영문학과 문시는 학생이 신입생 대표로 "재학 중 학업에 전념하고, 교양을 높여 인격도야에 노력할 것"을 선언했다.

올해 성적우수자로는 단과대 수석 학생인 경영학과 최승연과 간호학과 진유빈 학생 등이 선정되었고, 이날 대표로 최승연 학생이 장학 증서를 받았다. 입학성적 우수자는 4년간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된다.

이장호 총장은 "신입생들도 선배들의 뒤를 이어 각계각층 핵심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면서 "신입생들이 군산대학교에서 각계각층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잡을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덧붙여 이장호 총장은 "학과교수님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인생의 멘토로 삼을 수 있다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입학식에서는 군산대 음악과 이재시 교수가 '오 솔레 미오'와 '네손 도르마'를 축가로 불러 이채를 띠었다.

/군산=이재춘 기자

제6회 군산시늘푸른학교 초등학력인정 문해교육 졸업식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짧은 날의 꿈을 실현한 문해교육 졸업생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 28일 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제6회 군산시늘푸른학교 초등학력인정 문해교육 졸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졸업식은 졸업생 22명과 김임준 군산시장,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 졸업생 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 공연과 졸업장 수여와 기념사, 송사 및 답사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초등학력인정은 정규 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 학습자가 점진적으로 3 단계(초등 5·6학년 수준)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교육과정 이슈를 통해 초등학력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군산시늘푸른학교는 시가 찾아가는 문해교육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10

년부터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라북도교육청으로부터 학력인정기관으로 지정받아 2016년부터 올해까지 총 181명의 초등학력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오는 2024년에는 첫 중학학력 졸업생을 배출할 예정이다.

2022년 초등학력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주 4회 8시간씩 총 40주 동안 한글, 영어, 수학 등 교과 수업과 금융 건강 기능의 생활 문해교육은 물론 스마트 기기 활용력을 높이기 위한 키오스크 체험과 같은 디지털 문해교육 등 다양한 활용 순으로 진행됐다.

강 시장은 축하사를 통해 "배움에 대한 열정이 항상 가득한 학습자들이 초등학력 취득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경영개선 상품판매 이론+실전형 강소농 교육

군산시가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강소농 교육을 실시한다.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작지만 강한 농업인 역량강화와 소득향상을 위해 2023년 신규 강소농(強小農) 교육생 40명을 3월 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강소농이란 경영규모는 작으나 끊임없는 역량개발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통해 자율적인 경영혁신과 도전을 통해 소득향상을 목표로 하는 중소규모의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올해 강소농 교육은 경영개선 실천 외에 브랜드 개발을 통한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온라인스토어 실전교육 등 분야를 세분화해 진행할 예정이며, 농산물 및 가공식품 판매에 관심 있는 농가에 매우 유익한 과정이다. 특히, 농업인의 적극적인 경영개선실천을 통해 교육의 완성도를 높여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꾀하고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직장인 맞춤형 힐링교육 15개 강좌 운영

익산시가 '퇴근길 학습 한잔'으로 직장인들에게 야간 힐링 교육을 선사한다.

시는 시민들에게 저녁 문화가 있는 삶으로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익산시평생학습관은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직장인과 소상공인을 직접 찾아가는 야간 평생교육 프로그램 '퇴근길 학습 한잔'을 진행한다.

일몰이 끝난 저녁 시간을 통해 직장인의 학습 접근성을 높이고 배움의 즐거움을 보장하고자 학습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단체 등 유망시설 장소 15개소를 선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학습팀, 프로그램, 교육시설장(강사)은 퇴근 후 직장인 및 소상공인 스스로 기획한 예술, 인문, 직업 등 분야별로 신청할 수 있다.

전문 강사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학습매니저가 파견돼 직장인들의 학습 요구 파악과 학습 상담도 진행할 방침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보건소, 봄철 유행 감염병 예방 당부

군산시 보건소는 개학을 앞두고 봄철 유행하는 감염병의 집단 발생 감염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과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봄철 유행 감염병으로는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수두 등이 있다. 지난해 감염병 발생 통계에 따르면 유행성이하선염 63건, 수두 112건이다.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나 살모넬라 자용 및 권고 전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각종 감염병의 재유행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호흡기 바이러스를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인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개학을 앞둔 만큼 각 가정에서는 MMR(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에 대해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봄철 유행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개인예방수칙을 준수해주시고 감염병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진료와 검사를 받도록 하고 하부 호흡기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산=이재춘 기자